

목포 사립고 시험문제 유출, 교사 연루됐나

출력본 앞서 이메일로 유출...최초 유출자 밝히기 주력 경찰, 문제원안 접근 가능자 조사 위해 교사 잇따라 소환

목포 A사립고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기존에 알려진 출력본 유출본뿐 아니라 이메일 유출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경로·일시가 다른 유출본이 각각 존재한다는 점, 심화반 학생 다수가 유출본을 봤다는 점, 교사의 감시 범위에 있는 자습실 책상에서 유출 시험문제를 버젓이 보다가 다른 학생에게 그 모습을 촬영당한 학생도 있었다는 점에서 교사의 개입 의혹(광주일보 2018년 10월 16일자 7면)도 커지고 있다. 경찰 역시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조사하고 있다. 목포경찰은 지난 16일 학생, 학부모 등 복수 학교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출력 유출본이 아닌 이메일로 전송된 영어 시험문제 원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문제를 유출했다고 진술한 학생 B군이 지난 2일 오후 4시10분께 심화반 자습실 옆 교사 연구실 컴퓨터에서

출력한 이른바 '출력본'에 앞서 지난 1일 같은 자습실에서 유출된 시험문제를 보고 있던 학생 C군을 촬영한 사진을 입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 C군을 불러 조사한 결과, '1일 자습실에서 문제를 본 것은 사실이다. 출력본을 건네받은 게 아니라 같은 파일을 이메일로 친구 D군으로부터 건네 받았다. 이메일로 시험문제를 받은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메일로 시험문제를 최초 유출한 인물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를 자청하며 학교 시험문제 관리를 지적하던 한 학부모는 "교사들 감독 범위에 놓인 자습실에서 유출된 시험문제를 내놓고 봤으며, 이를 책상에 두고 다닐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다. 각기 다른 시점, 다른 유출 경로를 통해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일부 교사가

연루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학부모는 또 "내 아이들 말로는 '시험문제 유출이 이번 중간고사때만 이뤄진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 아주 만연했다. 시험문제 유출 비리를 뿌리뽑아달라"는 주장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도 학생 일탈로 여겼던 수사방향을 틀어 교사들의 방조나 연루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30대 여교사를 최근 소환조사한 데 이어 17일 각 교사가 출제한 시험문제 원안을 취합, 정리했던 교사를 불러 조사했다. 여교사는 "심화반 자습실 옆 교사 연구실에서 컴퓨터 외장하드에 저장된 시험문제 원안(11문제)을 검토하다 자리를 비워 결국 문제유출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고의로 유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이 이들을 잇따라 소환한 것은 경로와 시점을 달리해 존재하는 유출본이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험문제 원안에 접근 가능한 교사들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이메일 유출본, 프린트

유출본이 각각 시점과 경로를 달리해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리봐도 수상쩍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달 28-29일부터 10월 2일까지 교사연구실 컴퓨터 외장하드에 시험문제 원안이 지속적으로 보관돼 있고 그 관리가 매우 허술한 상태여야만 한다"며 "이것도 아니라면 외장하드가 아닌 그 컴퓨터에서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보관도 했으며 허술한 관리가 이뤄졌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40명에 이르는 심화반 자습실 이용 학생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다수 학생이 유출된 시험문제를 보고 시험을 치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11문제를 포함해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28문항이 출제됐다. 출력본을 가지고 있던 학생, 이메일 유출본을 친구에게 건네받아 본 학생, 그에 앞서 이메일을 누군가에게 건네받은 학생 등 최소 3명 이상 본 셈인데, 얼마나 많은 학생이 둘러봤을지 짐작이 힘들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학대 의혹 광주 보육시설 관계자 내주 소환

보육원생 43명 전수조사 완료 일부 학대 진술 확보 수사 속도 다음달 19일 수사 마무리 방침

경찰이 원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YWCA 산하 보육시설(광주일보 2018년 9월 27일자 6면)에 대해 일부 학대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 1명과 참고인 5명의 진술을 정취하고, 현 보육원생 4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13일 해당보육시설 원장 등 6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에 나온 피해자는 1명 뿐이었지만, 광주일보에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보육원생이 5명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추가 피해자를 찾아나선 끝에 5명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보육원을 퇴소하고 서울, 순천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보육시설과 정신병원 간 환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까지 확보한 진술 분석을 마친 후 다음주 중 시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며, 2차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기준치 10배 라돈 검출 '오늘습관' 생리대 논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환경부 기준치(148 Bq/m³)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늘습관' 생리대에 대해 다음주 중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이날 보도실명자료를 내고 "해당 제품은 국민신문고와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현재 시료를 확보해 방사능

농도 분석, 인체영향평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제품"이라며 "조사를 마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결함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조해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16일 JTBC '뉴스룸'은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으며 오늘습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JTBC는 저가의 라돈측정기인 '라돈아이'로 당사 생리대를 측정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군산 야생조류 분변서 AI 바이러스 검출

군산시 만경강 하류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현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 4점을 분석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변 지역에 대한 관찰 활동을 강화하고 방역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I 바이

러스는 H1부터 H16까지 16개 유전형으로 분류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함께 만경강 주변 철새 도래지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 관찰을 강화했다.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2~3일이 걸릴 전망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17일 광주시 북구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코카콜라 광주공장 화물노동자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하고 있다.

코카콜라 광주공장 해고사태 해결 촉구 봇물

시민단체·북구의회 "원청업체·코카콜라 적극 나서라"

코카콜라 광주공장 화물노동자 해고사태가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운송업체의 원청인 LG생활건강과 코카콜라측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광주시 북구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로 빚어진 현 사태를 LG그룹과 코카콜라가 직접 해결해야 한

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실상 원청인 LG와 코카콜라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운송사인 'GU상사'에 떠넘기면서 개별계약관계인 화물노동자는 부당한 운송료와 차비에 대

한 시정요구를 사실상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LG와 코카콜라는 운송사의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 화물노동자들과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카콜라 광주공장 소재지 의원들이 광주 북구의회의원들도 이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원청사인 코카콜라와 LG생활건강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운송료를 인상에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민주노동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카콜라와 LG생활건강

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 노조원들은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코카콜라 운송사 GU 측으로부터 해고와 다들 바 없는 배차 배제 조치를 당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노조원들의 농성과정에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해 노조원과 연대단체 회원 등 11명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돼 불구속 입건됐으며, 노조와 경찰 양측 12명이 다쳤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남친·남편 성매매 기록 확인해줍니다"... '원조 유흥탐정' 털미

○남자친구나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인 '유흥탐정'을 개설해 일부 남성을 개별 털게 했던 30대가 경찰에 털렸다. ○-17일 서울 강남경찰 등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유흥탐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6일 A(36)씨를 체포했는데, A씨는 지난 8월부터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를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며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조회해 주는 수법으로 한달여만에 수

만건을 의뢰받아 수억원대의 수익을 냈다는 것. ○-A씨는 실제 5만원을 입금한 뒤 남자친구나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부터 방문 날짜, 통화 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남성의 성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가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 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했으며, A씨의 범행을 보고 모방 범행을 벌이는 이들도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